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 1월 이래 최저... 19만8천건
- WSJ: 팬데믹 이후 미 가구 순자산 크게 증가

[뉴욕시]

- Bloomberg: 뉴욕시 주택 소유자의 비용, 인플레이보다 3배 빨라
- Bloomberg: 이번 주말 뉴욕에 또 비온다

[항공]

- WSJ: UA 항공사, 이코노미석 탑승 소요 시간 줄인다
- WSJ: 델타 항공사, 로얄티 프로그램 재수정하다
- Bloomberg: 아메리칸 에어, 이번 실적은 좋지만 다음 실적은?

[COVID-19]

- WSJ: 화이자, 코비드 치료제 Paxlovid 1천4백불 책정

[반도체]

- The Economist: 한국 반도체 기업들, 대중국 수출 제한 유예를 받긴 했는데...

[글로벌 경제]

- Bloomberg: 일본, 9월 수출액 예상보다 상회하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 Business: 코스트코, 현직 CEO 올해 말 퇴임 발표
- Bloomberg: 혼다, 2026년에 자율주행 택시 선보인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Jobless Claims Fall to 198,000, Lowest Level Since January

미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 1월 이래 최저... 19만8천건

- 미 노동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미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1월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 10월 14일로 끝나는 주의 해당 건수가 19만8천건이라고 오늘 목요일 연방 노동부는 밝혔다.
- 계속 실업수당을 받는 전체 숫자는 1백73명으로 7월 이후로 가장 많은데 실직자의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Bloomberg 기사

WSJ: Household Net Worth Surged After the Pandemic Hit 팬데믹 이후 미 가구 순자산 크게 증가

- 코비드 충격 이후 수년간 미국 가구들의 자산이 크게 증가해 이같은 강한 소비자 상황이 미국 경제를 고금리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인플레이 조절을 감안한 미 가구 중간 순 자산은 2019과 비교해 2022년에 37% 증가한 것으로 어제 연준 설문 결과 나타났다. 이번 수치는 해당 집계 가 1989년 이래 3년씩 발표되는데 가장 큰폭의 증가율이라는 것이다.
- 가구의 자산 증가는 집값 상승과 주식이 인플레이를 앞질렀다. 중산층과 저소득층 모두 증가했다.

WSJ 기사

[뉴욕시]

Bloomberg: NYC Homeowner Costs Are Rising at Three Times the Inflation Rate

뉴욕시 주택 소유자의 비용, 인플레이보다 3배 빨라

- 최근 수년간 주거 비용들이 크게 올라 콘도나 코압 소유자들의 더욱 압박하고 있다.
- 콘도와 코압 보드 위원회에 지불하는 비용이 인플레이 비율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빠르고, 더욱 까다로워진 검사 규정, 보험료 인상, 엄격한 새로운 규정의 기후법에 준비 등으로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거 비용을 지불하는 소유주들이 매달 수백달러 또는 수천달러를 더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따라 특히 고정수입 노인들과 첫 주택 구입 젊은층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It's Probably Going to Rain in New York This Weekend. Again.

이번 주말 뉴욕에 또 비온다

- 9월 초부터 주말마다 비가 내리면서 뉴욕시가 가장 습한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 폭풍이 금요일 또는 토요일 중부 대서양 해안에서 시작되어 북상하면서 북동부 일부 지역에 상당한 강우량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 기상예보센터에 따르면 정확한 시기와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것.

- 폭풍이 빨리 시작되거나 속도가 빨라질 경우에 일요일에는 다행히 쾌적하고 건조한 가을 날씨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시 소재 국립 기상 서비스는 밝혔다.

Bloomberg 기사

[COVID-19]

WSJ: Pfizer Prices Covid Drug Paxlovid at \$1,400 for a Five-Day Course 화이자, 코비드 치료제 Paxlovid 1천4백불 책정

- 화이자는 올해말 판매가 허용되면서 코로나 19 치료제인 Paxlovid 의 5일간 치료제 비용을 1천4백불로 책정했다. 이 가격은 연방 정부가 지불한 가격의 두배 이상이 되는 금액이다.
- 5일간 사용에 1천3백90달러인데 반해 연방정부는 5백29불을 지불했다.
- 의료보험 소지자는 부담일 크게 줄어들 예정이며 파이저는 가격을 디스카운하고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는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Bloomberg 기사

[항공]

WSJ: How United Airlines Is Changing Its Boarding Process for Economy Passengers UA 항공사, 이코노미석 탑승 소요 시간 줄인다

- 유나이티드 에어라인(United Airlines)이 불편했던 비행기 탑승 절차를 변경한다.
- 다음 주에 이 기업은 이코노미석 승객들을 위해 탑승 절차를 최대 2분까지 단축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도입한다.
- 방법은 단순해 보인다. 승객들이 탑승할 때 창가 쪽 자리의 승객이 먼저 탑승하고, 그다음 중간 좌석, 마지막으로 통로 측 좌석 승객이 탑승하도록 탑승 순서를 조정한 것이다. 단체로 탑승하는 고객들의 경우 전과 다름없이 동시에 탑승하게 된다.

WSJ 기사

WSJ: Delta Air Lines Makes Changes to Its SkyMiles Loyalty Program—Again 델타 항공사, 로얄티 프로그램 재수정하다

- 델타 항공사는지난달에 발표했던 변경 내용에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자사 단골 고객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있다.

- 그러나, 가장 자주 이용했던 고객이 아닌, 가장 많이 지불한 고객들에게 보상을 줘 이용객들에게 원성을 샀던 지난 변경을 완전히 되돌리진 않았다.
- 이 기업은 고객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엘리트 등급 멤버십 취득 비용을 낮추고, 특정 신용 카드 소지 고객만이 이용할 수 있었던 라운지 이용 제한을 완화했다. 또한, 최상위 등급 멤버십을 보유한 고객을 위해 추가 보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WSJ 기사

Bloomberg: American Air Beats for Quarter, Cuts Forecast on Higher Fuel 아메리칸 에어, 이번 실적은 좋지만 다음 실적은?

- 아메리칸 에어라인(American Airlines)이 월스트리트 3분기 수익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러나, 올해 4분기에 대한 수익 전망은 감소했는데, 이는 항공 연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항공사가 받는 타격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 이 기업은 오늘 목요일 성명에서, 조정 연간 수익이 주당 2.25달러에서 2.50 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조정 연간 수익이 주당 3.75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한 이전 추정치에서 감소한 것이다.

Bloomberg 기사

[반도체]

The economist: South Korean chipmakers get a reprieve 한국 반도체 기업들, 대중국 수출 제한 유예를 받긴 했는데...

- 1년간 미국으로 부터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에 대해 유예를 받았던 한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10월 9일 미국으로부터 유예 조치가 무기한 연장되었다.
- 그러나 미중 기술 전쟁의 향후 불확실성과 중국 정부가 국내 반도체 업체들을 강화시키려는 시도로 그들이 중국을 뛰어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은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 업체들이 공급망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도록 인플레이 감축법을 시행해 한국에 부담을 주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 반도체 개발을 막기위해 또다른 조치를 취한다면 이들 기업들은 추가적인 부담 압력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한국산 칩에 대한 중국 수요도 불확실한데, 중국의 경제 약한 경제 회복세와 이에 따라 재고가 많아 힘든 상황이다. 중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56%가 중국의 국내 칩 발전 산업 정책 때문에 수출이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 주요 한국 기업들이 중국외에 한국과 미국에 관련 시설을 늘리려고 하지만 생산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The Economist 기사

[글로벌 경제]**Bloomberg: Japan Exports Rise More Than Expected in Support for Recovery****일본, 9월 수출액 예상보다 상회하다**

- 9월 일본의 수출이 예상보다 상승해 팬데믹 이후 완만한 경제 회복을 보였던 일본 경제를 지탱했다.
- 오늘 목요일 일본 재무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자동차와 의약품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수출액이 4.3%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경제학자들은 이전에 3% 수출액 상승을 전망했었다.
- 그러나, 원유, 천연가스 그리고 석탄의 영향으로 수입은 16.3% 감소했다.
- 무역수지는 4억 1천 7백만 달러로서, 흑자로 전환됐다.
- 엔화약세를 통해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향상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CNN Business: Costco's longtime CEO steps down****코스트코, 현직 CEO 올해 말 퇴임 발표**

- 오랜 시간 동안 코스트코를 이끌었던 CEO Craig Jelinek가 올해 말에 퇴임할 것이라고 기업 관계자가 어제 수요일 발표했다.
- 새로운 CEO는 Ron Vachris가 될 것이며, 그는 현재 코스트코의 대표이자 COO로서 40년 전에 코스트코에서 지게차를 몰며 회사 생활을 시작했다.
- 발표 이후 수요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트코의 주가는 약간의 변동만이 있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동요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보여진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Honda to Start Self-Driving Taxi Service in Tokyo, CEO Says
혼다, 2026년에 자율주행 택시 선보인다

- 혼다가 2026년 초 도쿄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쿄에서 택시 기사가 부족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 이 기업은 이미 GM과 자회사인 크루이즈 LCC(Cruise LCC)와 협력해 자율 주행 자동차를 개발해 왔으며, 미국의 네 개 도시에서 자율 주행 택시 테스트를 진행하는 중이다.
- 오늘 목요일 행사장에서 혼다 CEO 인 Toshihiro Mibe는 사업계획과 관련해 도쿄 중심부에서 수십 대의 자율 주행 택시를 시범 운영할 것이며, 차후에 500대까지 대수를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의 이름은 “크루즈 오리진(Cruise Origin)”이라고 한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상업용부동산 대출연체에 은행권 부담 지속...소형은행 우려 커

미국 상업용 부동산 경기 둔화 속에 대출 연체 문제가 이어지면서, 대출 부실화에 따른 은행권 부담도 계속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건스탠리는 이날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 대손에 대비해 1억3천400만 달러(약 1천818억원)를 확보한 상태라면서, 이는 상업용 부동산 부문의 상황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빌딩 소유주들이 대출 금리 상승과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공실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이 결국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질 경우 돈을 빌려준 금융권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